

##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도현심(Hyun-Sim Doh)<sup>1)</sup>

신나나(Nana Shin)<sup>2)</sup>

박보경(Bo-Kyung Park)<sup>3)</sup>

김민정(Min-Jung Kim)<sup>4)</sup>

김혜인(Hye-In Kim)<sup>5)</sup>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 total of 155 mothers with preschoolers aged 3 and 4 years (83 boys and 72 girls)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from mothers' depression to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First, it was revealed that mothers' depression did not directly affect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59).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sup>3)</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sup>4)</sup>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sup>5)</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mothers' depression indirectly influenced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rough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ther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showed less warmth/acceptance and more rejection/restriction towards their children, which led to higher levels of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sitive parenting by mothers in reducing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Keywords** : 어머니의 우울(mothers' depression),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behavior),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 I. 서론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은 신체, 인지, 사회·정서 등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물리적 환경이 가정 외로 확장되면서 유아는 또래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점차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방해하는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행동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유아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보다는 스스로의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Gilliom & Shaw, 2004). 그러나 특별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 한 이 시기에 출현하는 문제행동은 대부분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일환으로 유아의 인지능력, 언어능력, 그리고 조절능력이 향상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Campbell, 2002; Campbell, Shaw, & Gilliom, 2000; Coie & Dodge, 1998; Hartup, 1996; Kopp, 1982; Tremblay,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는 이러한 문제행동이 장기

적으로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종단 연구들에 따르면, 공격성, 품행문제, 주의집중 결여, 과잉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뿐 아니라(Mesman, Bongers, & Koot, 2001; 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Yune, Kang, & Oh, 2011), 또래거부, 학교 부적응, 사회적 기술 부족 등과 같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예측하였다(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따라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령기나 청소년기에 비행행동을 보이거나(Campbell, 2002; 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Shaw, Winslow, & Flanagan, 1999), 성인기 범죄로(Moffitt, 1993) 이어지기 쉽다. 이렇듯 초기에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그 심각성이 크며,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예방적 측면에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출현과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unola & Nurmi, 2005; Lee, Koh, & Kim, 2009).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변인은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특히 심리적 특성에 속하는 우울은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아와 같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만성적인 우울을 경험할 경우,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Alpern & Lyons-Ruth, 1993; Brennan et al., 2000; Kim-Cohen, Moffitt, Taylor, Pawlby, & Caspi, 2005; Lyons-Ruth, Easterbrooks, & Cibelli, 1997),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우울이 만연되어 있다는 점(Stewart, 2007)에서 아동의 발달결과와 관련한 어머니의 우울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우울한 어머니의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Dawson et al., 2003; Foster, Garber, & Durlak, 2008; Owens & Shaw, 2003), 일반집단에서 어머니 우울의 지속성과 심각성은 5세 유아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Brennan et al., 2000). 종단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져, 생후 18개월에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7세에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고(Lyons-Ruth et al., 1997). 이 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은 임상집단과 일반집단 모두에서 학령기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정서 및 행동, 인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cCullough & Shaffer, 2014; Mustillo, Dorsey, Conover, & Burns, 2011; National Research Council & Institute of Medicine, 2009).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Ahn(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드문 편이다.

한편,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Goodman과 Gotlib(1999)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국외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Dawson et al., 2003; Foster et al., 2008; Hoffman, Crnic, & Baker, 2006; Langrock, Compas, Keller, Merchant, & Copeland, 2002; Marchand, Hock, & Widaman, 2002; McCullough & Shaffer, 2014; Mustillo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 등 양 변인 간의 매개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세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몇몇 국외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Foster et al., 2008; Hoffman et al., 2006; Mustillo et al., 2011).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긍정적 정서와 온정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덜 보이거나(Foster et al., 2008) 방임적 양육행동을 통해(Mustillo et al., 201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Chung & Kim, 2003; Kim & Lee, 2013)은 보고되고 있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Kim & Jang, 2004; Yoon & Choi, 2006).

이 외에도,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은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oodman & Gotlib, 1999). 즉, 무기력함, 짜증, 슬픔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덜 표현하고, 정서적인 방임이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쉽다. 실제로 이러한 관련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우울한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Downey & Coyne, 1990;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우울한 어머니들은 자녀와 상호작용을 덜 하고, 자녀에게 덜 공감하며, 자녀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Campbell et al., 2004; Feng, Shaw, Skuban, & Lane, 2007; Siberg & Rutter, 2002). 또한 우울한 어머니들은 자녀와 갈등적/적대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자녀에게 체벌을 보다 많이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Chung, McCollum, Elo, Lee, & Culhane, 2004; Lyons-Ruth, Wolfe, Lyubchik, & Steingard, 2002; Shin & Stein, 2008). 특히 Lovejoy 등(2000)은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46개의 연구들을 이용한 메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은 긍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무관심의 세 가지 양육행동 유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매개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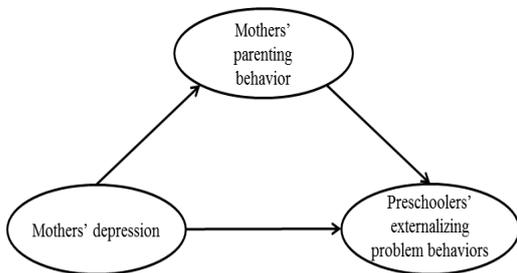
향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의 예를 들면,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적응과 관련을 보여(Chen, Liu, & Li, 2000; Chun, 1993; Denham et al., 2000; Knafo & Plomin, 2006; Patrick, Snyder, Schrepferman, & Snyder, 2005),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Knafo & Plomin, 2006), 측정 시점과 1년 후 모두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Patrick et al., 2005).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초기에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던 유아에게서 더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Denham et al., 2000). 반면, 온정성이 낮고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측정 시점(Kang & Oh, 2011; Um & Park, 2006)뿐 아니라 이후(Gilliom & Shaw,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 Speiker, Larson, Lewis, Keller, & Gilchrist, 1999)의 문제행동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유아기 문제행동의 출현과 지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니의 비일관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Querido, Warner, & Eyberg, 2002), 방임적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주의집중문제나 공격행동(Park & Kang, 2012)과 아동의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Knutson, DeGarmo, & Reid, 2004)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유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한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게 되고 거부·제재적이며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많이 보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녀는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는 어떠한가?

1-1.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Linking mothers' depression to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rough mothers' parenting behavior

1-2.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만 3~4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단기종단연구에 참가한 155명의 어머니들이다.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3명(53.5%), 여아가 72명(46.5%)이고, 연령은 만 3세가 117명(75.5%), 만 4세가 38명(24.5%)으로 평균 46.87개월( $SD = 4.64$ 개월)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84명(54.2%), 둘째가 64명(41.3%), 셋째 이상이 7명(4.5%)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131명(84.5%)과 109명(70.3%)이 30~39세로 대부분이 30대에 속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65명(41.9%),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40명(25.8%) 순이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76명(49.0%),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33명(21.3%) 순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57명(36.8%),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45명(29.0%),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7명(11.0%) 순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58명(37.4%),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25명(16.1%),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22명(14.2%) 순이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우울 및 양

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등을 측정하는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며, 모두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 1) 어머니의 우울 척도

어머니의 우울은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CES-D) Scale을 한국인에게 적용하여 완성한 Shin 등(1991)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울 감정(5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5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의 4가지 하위요인(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우울 감정의 경우 '기분이 우울했다.', '슬픔을 느꼈다.' 등을, 긍정적 감정의 경우 '행복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을,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의 경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도 귀찮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든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등을,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았다(1일 미만)', '가끔 그랬다(1~2일)', '자주 그랬다(3~4일)', '대부분 그랬다(5~7일)'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감정 요인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우울 감정이 .82, 긍정적 감정이 .73,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이 .68, 대인관계가 .58이었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Schaefer(1965)의 양육행동 모형을 기초로 개발한 Park(1995)의 질문지를 축약하여 사용한 Kim(2003)의 아동용 척도를 어머니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허용·방임(10문항) 등의 3가지 하위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등이, 거부·제재와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아이에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등이, 허용·방임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일도 아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둔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평소 자녀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요인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수용은 더 많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은 덜 나타내어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임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온정·수용이 .83, 거부·제재가 .86, 허용·방임이 .76이었다.

###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일부이다. KPRC는 만 3~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으며, 총 177

문항으로 타당도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임상 척도는 언어 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 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 등을 측정하는 10가지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역 중 외현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비행(15문항)과 과잉행동(19문항) 등의 2가지 하위요인(총 3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비행 요인은 반항과 불복종, 공격성과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 비행이나 품행 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문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아의 특성에 맞춰 ‘품행문제’로 명명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을 못살게 군다.’, ‘거짓말을 곧잘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과잉행동 요인은 과잉행동과 충동성, 부주의 등을 측정하며, ‘끊임없이 움직인다.’, ‘주의가 산만하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유아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각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보임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품행문제가 .79, 과잉행동이 .86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설계상 2년간 3차례에 걸쳐 155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단기종단 연구의 사전 조사 및 첫 번째 조사 자료의 일부분을 이용하였다. 사전 조사는 2010년 12월~2012년 1월에 서울과 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의 동의하에 유아 편에 어머니들에게 배부된 질문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 조사는 2011년 2월~2012년 3월에 어머니들이 직접 실험실에 방문하여 질문지

를 작성하였다. 사전 조사와 첫 번째 조사는 1~3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각각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으며, 이 때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검증과 함께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chi^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며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Hong, 2000), GFI, N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 Ⅲ. 결과분석

###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먼저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 감정( $r = .26, p < .01$ ),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r = .26,$

〈Table 1〉 Correlations amo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N = 155)

	1	2	3	4	5	6	7	8	9
<u>Mothers' depression</u>									
1. Depressed affect	-								
2. Positive affect	-.45***	-							
3.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73***	-.32***	-						
4. Interpersonal relations	.59***	-.32***	.47***	-					
<u>Mothers' parenting behavior</u>									
5. Warmth/acceptance	-.17*	.28***	-.12	-.06	-				
6. Rejection/restriction	.29***	-.21**	.26**	.28***	-.55***	-			
7. Permissiveness/neglect	.11	-.02	.00	.21**	-.12	.22**	-		
<u>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u>									
8. Conduct problems	.26**	-.15	.26**	.31***	-.42***	.41***	.16*	-	
9. Hyperactivity	.15	-.12	.11	.19*	-.43***	.40***	.16*	.67***	-
M	1.61	2.55	1.87	1.38	3.06	1.87	1.93	54.48	54.17
SD	.57	.66	.53	.52	.33	.41	.33	10.69	10.73

\* $p < .05$ . \*\* $p < .01$ . \*\*\* $p < .001$ .

$p < .01$ ) 및 대인관계( $r = .31, p < .001$ )는 품행 문제와, 어머니의 대인관계는 과잉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r = .19, p < .05$ ). 즉, 어머니들은 우울 감정,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지각할수록 유아가 품행문제 및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품행문제( $r = -.42, p < .001$ ) 및 과잉행동( $r = -.43, p < .001$ )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품행문제( $r = .41, p < .001$ ) 및 과잉행동( $r = .40, p < .001$ )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품행문제( $r = .16, p < .05$ ) 및 과잉행동( $r = .16, p < .05$ )

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거나 거부·제재적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 감정과 긍정적 감정은 온정·수용적(우울 감정:  $r = -.17, p < .05$ , 긍정적 감정:  $r = .28, p < .001$ )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우울 감정:  $r = .29, p < .001$ , 긍정적 감정:  $r = -.21, p < .01$ )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r = .26, p < .01$ )과만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대인관계는 거부·제재적( $r = .28, p < .001$ )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r = .21, p < .01$ )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가 우울 감정을 더 느끼고 긍정적 감정을 덜 느낀다고 지각할수록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을 더 지각할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더 지각할수록 거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 2.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변인들이 특정 잠재변인들을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0.91(df = 24, p < .05)$ ,  $\chi^2/df = 1.70$ , GFI = .95, NFI = .91, TLI = .94, CFI = .96, RMSEA = .07로 나타났다. 모형이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GFI, NFI, TLI,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08이하이어야 하는데(Browne & Cudeck, 1993; Hong, 200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러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 $\beta$ )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요인부하량( $\beta$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Table 2> Fit indices in the measurement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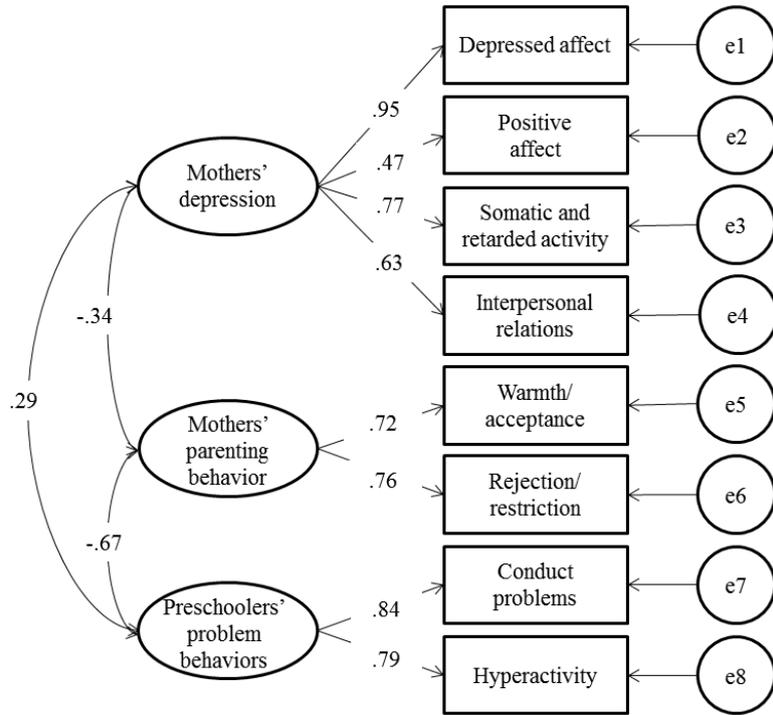
Model	$\chi^2$	df	$\chi^2/df$	GFI	NFI	TLI	CFI	RMSEA (LO90~HI90)
Measurement model	31.74*	17	1.87	.95	.93	.94	.97	.08 (.03~.12)

\* $p < .05$ .

<Table 3> Factor loadings in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beta$	S.E.	C.R.
Mothers' depression	Depressed affect	1.00	.95		
	Positive affect	.58	.47	.10	5.87***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76	.77	.08	10.11***
	Interpersonal relations	.61	.63	.08	8.12***
Mothers' parenting behavior	Warmth/acceptance	1.00	.72		
	Rejection/restriction	1.31	.76	.22	6.91***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Conduct problems	1.00	.84		
	Hyperactivity	.94	.79	.13	7.23***

\*\*\* $p < .001$ .



〈Figure 2〉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in the measurement model

않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5, p > .05$ ). 따라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삭제한 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1.74(df = 17, p < .05)$ ,  $\chi^2/df = 1.87$ , GFI = .95, NFI = .93, TLI = .94, CFI = .97, RMSEA = .08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Table 2). 또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47~.95로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Table 3, Figure 2).

### 3.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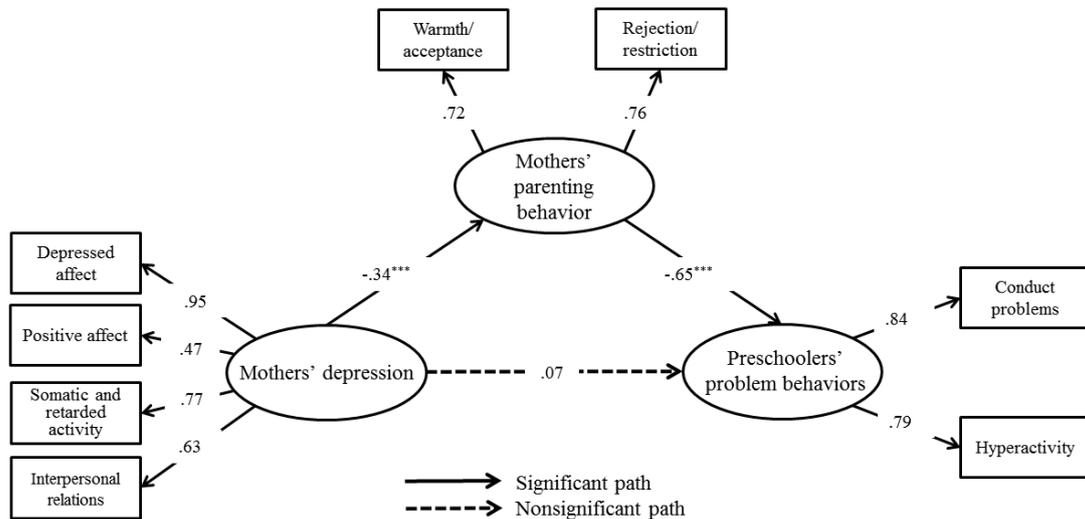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 = 31.74(df = 17, p < .05)$ ,  $\chi^2/df = 1.87$ , GFI = .95, NFI = .93, TLI = .94, CFI = .97, RMSEA = .0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직접적인 경로와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첫째,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7, p > .05$ ). 둘째,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beta = -.34, p < .001$ )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beta = -.65,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우울 수준을 높게 응

〈Table 4〉 Path loading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 loadings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	$\beta$	S.E.	C.R.
Mothers' depression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1.20	.07	1.53	.43
Mothers' depression → mothers' parenting behavior	-.15	-.34	.05	-3.34***
Mothers' parenting behavior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24.65	-.65	4.82	-5.11***

\*\*\*  $p < .001$ .



〈Figure 3〉 Path loadings in the structural model

답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덜 온정·수용적이고 더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였으며, 온정·수용이 낮고 거부·제재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유아기 자녀가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로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5).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beta = -.65, p < .05$ )은 어머니의 우울( $\beta = .29, p < .05$ )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 $\beta = -.34, p < .01$ )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eta = .22, p < .01$ ). 이어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SMC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thers' depression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07	.22**	.29*	.46
Mothers' parenting behavior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65*	-	-.65*	
Mothers' depression → Mothers' parenting behavior	-.34**	-	-.34**	.12

\* $p < .05$ . \*\* $p < .01$ .

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6%이었으며, 어머니의 우울의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2%이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만이 발견되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가한 유아기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우울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자녀를 덜 온정·수용적이고 더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온정·수용이 낮고 거부·제재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유아가 품행문제 및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Chung & Kim, 2003; Foster et al., 2008; Kim & Lee, 2013)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이 강압적 또는 통제적 양육과 같은 부정적 양육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im & Jang, 2004; Kim & Kim, 2011)과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은 양육자의 우울 감정이 덜 양육적이거나(nurturant) 관여하는(involved)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족 스트레스 모델(Conger et al., 2002)을 지지한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이 행동적 측면으로 연결되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이기 쉬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부정적 발달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 그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우울로부터 야기되는 양육기술에서의 손상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보다 좋은 지표라고 제안한 Moon과 Oh(1995)의 주장과 동일한 맥

락이다.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 상태와 더불어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과 더불어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우울 수준이 높은 부모들을 위해서는 특히 정서 조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어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을 거쳐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우울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를 격려하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보이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won, 2013; Westbrook & Harden, 2010)이나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Chung & Kim, 2003; Kim & Jang, 2004)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 국내외 연구결과들(Foster et al., 2008; Kim & Lee, 2013; Lee & Jang, 2009)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한 선행 연구결과(Lee & Jang, 2009)에 근

거할 때,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 사고를 함으로써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우울의 하위요인들과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에 발견된 결과는 흥미롭다. 어머니 우울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우울의 일부 하위요인들만이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특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메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의 세 가지 유형, 즉 긍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및 무관심 중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Lovejoy et al., 2000)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 인해 자녀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자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행동을 보이기 쉬울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에 기초할 때(Park, Doh, Kim, & Song, 2014), 어머니의 우울이 부정적 양육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신의 우울한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의 중재적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참가자들이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집단임을 상기할 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부모의 정서조절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스스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거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온정이나 애정, 수용을 덜 보일수록 유아가 공격적 행동 및 주의집중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ang & Oh, 2011; Lee & Hyun, 2008)이나 어머니가 거부나 적대, 통제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도 공격적 행동, 주의집중문제, 과잉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ang & Oh, 2011; Kim, 2009; Park & Kang, 2012)과 일맥상통한다. 양자 간의 관계는 아동의 부모 행동에 대한 모방 학습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으며 화를 내거나 자주 야단을 치는 등 부정적인 양육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모방하여 적대감, 반항, 불순응,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울 것이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이고 일관적으로 대하는 등 긍정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 또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몇몇 선행 연구들은 특히 부모의 긍정적 행동의 부재가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Chronis et al., 2007; Koblinsky, Kovalanka, & Randolph, 2006). 이는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 특히 부모-자녀 간

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초기 긍정적 양육이 훗날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ronis et al., 2007)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하위요인들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에 몇몇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자 어머니의 우울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양자 간을 완전매개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우울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건대, 우울 증상이 자녀양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접근을 통해 자신과 자녀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줄임과 동시에 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중재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Mezulis, Hyde, & Clark, 2004)에 기초하건대,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중심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등 모든 연구변인들을 어머니 보고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보고 외에 아버지나 교사에 의한 보고 또는 제 3자에 의한 관찰 등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충분한 숫자의 연구 참가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선정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측면을 비롯한 아동의 기질 특성, 아버지의 우울 및 양육행동, 부모의 인지적 지각, 부부관계 등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인 어머니의 정서 및 행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의 예측 변인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데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References

- Ahn, E. Y. (2014). The influence a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have on a child's aggre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uwon, Suwon, Korea.
- Alpern, L., & Lyons-Ruth, K. (1993).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at h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3), 371-387.
-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8.
- Aunola, K., & Nurmi, J.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rennan, P. A., Hammen, C., Andersen, M. J., Bor, W., Najman, J. M., & Williams, G. M. (2000). Chronicity, sever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Relationships with child outcomes at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759-76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Guilford Press.
- Campbell, S. B., Brownell, C. A., Hungerford, A., Spieker, S. J., Mohan, R., & Blessing, J. S.

- (2004). The course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ternal sensitivity as predictors of attachment security at 36 month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231-252.
- Campbell, S. B., Pierce, E. W., Moore, G., Marakovitz, S., & Newby, K. (1996). Boys' externalizing problems at elementary school age: Pathways from early behavior problems, maternal control, and family str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4), 701-719.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467-488.
- Chen, X., Liu, M., & Li, D. (2000).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dulgence and their relations to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401-419.
- Chronis, A. M., Lahey, B. B., Pelham, W. E. Jr., Williams, S. H., Baumann, B. L., Kipp, H., et al. (2007). Maternal depression and early positive parenting predict future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3(1), 70-82.
- Chun, H. Y. (1993).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on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4(2), 17-34.
- Chung, E. K., McCollum, K. F., Elo, I. T., Lee, H. J., & Culhane, J. F. (2004).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infant health practices among low-income women. *Pediatrics*, 113(6), 523-529.
- Chung, M. K., & Kim, Y. H. (2003).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predicting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8), 123-137.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779-862).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 Dawson, G., Ashman, S. B., Panagiotides, H., Hessler, D., Self, J., Yamada, E., et al. (2003). Preschool outcomes of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Role of maternal behavior, contextual risk, and children's brain activity. *Child Development*, 74(4), 1158-1175.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3-45.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Feng, X., Shaw, D. S., Skuban, E. M., & Lane, T. (2007). Emotional exchange in mother-child

- dyads: Stability, mutual influenc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714-725.
- Foster, C. J. E., Garber, J., & Durlak, J. A. (2008). Current and past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27-537.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 Goodman, S. H., & Gotlib, I. H. (1999). Risk for psychopathology in the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A developmental model for understand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Psychological Review*, 106(3), 458-490.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offman, C., Crnic, K. A., & Baker, J. K. (2006).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children's emergent emotion regulation and behavioral function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4), 271-295.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Kang, J. H., & Oh, K. J.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e, temperament and parenting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1), 1-21.
- Kim, E. (2009).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child behavior problem.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3(3), 35-45.
- Kim, H., & Lee, M. (2013).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and marital on the problem behavior of their childr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s a mediator.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1(3), 73-92.
- Kim, M. J. (2003).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 Kim, Y. H. (2011). Family economic distress,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controlling parenting style, and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5), 59-70.
- Kim, Y., & Jang, L. (2004). Parents' perfectionism,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maladjustment abstrac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8(1), 117-139.
- Kim-Cohen, J., Moffitt, T. E., Taylor, A., Pawlby, S. J., & Caspi, A. (2005).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 173-181.
- Knafo, A., & Plomin, R. (2006). Parental discipline and affectio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lin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47-164.
- Knutson, J. F., DeGarmo, D. S., & Reid, J. B.

- (2004). Social disadvantage and neglectful parenting as precursors to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aggressive child behavior: Testing a theoretical model. *Aggressive Behavior, 30*(3), 187-205.
- Koblinsky, S. A., Kuvalanka, K. A., & Randolph, S. M. (2006). Social skills and behavior problems of urban,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Role of parenting practices, family conflict, and maternal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554-563.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won, Y. H. (2013). Child's happiness: Effects of emotionality,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525-537.
- Langrock, A. M., Compas, B. E., Keller, G., Merchant, M. J., & Copeland, M. E. (2002). Coping with the stress of parental depression: Parent's reports of children's coping,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12-324.
- Lee, C. S., & Hyun, E. J. (2008). The effects of children's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3), 51-70.
- Lee, J., & Jang, M. (2009).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parent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9*(2), 1-16.
- Lee, S. H., Koh, I. S., & Kim, M. J. (2009). A study that related variables to effect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3*(1), 163-183.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Lyons-Ruth, K., Easterbrooks, M. A., & Cibelli, C. D. (1997). Infant attachment strategies, infant mental lag,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t age 7.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81-692.
- Lyons-Ruth, K., Wolfe, R., Lyubchik, A., & Steingard, R. (2002). Depressive symptoms in parents of children under age 3: Socio-demographic predictors, current correlates, and associated parenting behaviors. In N. Halfon, K. T. McLearn, & M. A. Schuster (Eds.), *Child rearing in America: Challenge faci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pp. 217-2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and, J. F., Hock, E., & Widaman, K. (2002). Mutual relations between mothers' depressive symptoms and hostile-controll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4), 335-353.
- McCullough, C., & Shaffer, A. (2014).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externalizing problems: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ly maltreating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 389-398.

- Mesman, J., Bongers, I. L., & Koot, H. M. (2001). Preschool developmental pathways to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5), 679-689.
- Mezulis, A. H., Hyde, J. S., & Clark, R. (2004). Father involvement moderates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during a child's infancy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kindergart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75-588.
-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771-786.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oon, K., & Oh, K. (1995).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maladjustment - Observation of interactions between depress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1), 41-55.
- Mustillo, S. A., Dorsey, S., Conover, K., & Burns, B. J. (2011).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outcomes: The mediating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 164-180.
-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9). *Depression in parents, parenting, and children: Opportunities to improve identification, treatment, and preven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Owens, E. B., & Shaw, D. S. (2003). Predicting growth curves of externalizing behavior across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6), 575-590.
- Park, M., & Kang, J. H. (2012).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their parents'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infan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28(4), 331-352.
- Park, S., Doh, H., Kim, M., & Song, S. (2014). The effects of maternal grand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2), 117-136.
- Park, Y. Y. (1995).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trick, M. R., Snyder, J., Schrepferman, L. M., & Snyder, J. (2005). The joint contribution of early parental warmth, communication and tracking, and early child conduct problems on monitoring in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6(5), 999-1014.
- Querido, J. G., Warner, T. D., & Eyberg, S. M. (2002).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2), 272-27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 38, 413-424.
- Shaw, D. S., Winslow, E. B., & Flanagan, C. (1999).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3), 742-755.
- Shin, D., & Stein, M. A. (2008). Maternal depression predicts maternal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Yonsei Medical Journal, 49*(4), 573-580.
- Shin, S. C., Kim, M. K., Yun, K. S., Kim, J. H., Lee, M. S., Moon, S. J., et al. (199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CES-D): Its use in Korea-standardization and factor structure of CES-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4), 752-767.
- Siberg, J., & Rutter, M. (2002). Nature-nurture interplay in the risks associated with parental depression. In S. H. Goodman & I. H. Gotlib (Eds.),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pp. 13-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mith, C. L., Calkins, S. D., Keane, S. P., Anastopoulos, A. D., & Shelton, T. L. (2004). Predicting stability and change in toddler behavior problems: Contributions of maternal behavior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29-42.
- Speiker, S. J., Larson, N. C., Lewis, S. M., Keller, T. E., & Gilchrist, L. (1999).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70*(2), 443-458.
- Stewart, R. C. (2007).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growth: A review of recent evidence. *Maternal and Child Nutrition, 3*(2), 94-107.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Um, S. A., & Park, S. Y. (2006). Toddler's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6), 59-69.
- Westbrook, T. R., & Harden, B. J. (2010). Pathways among exposure to violence, maternal depression, family structure, and child outcome through parenting: A multigroup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0*(3), 286-400.
- Yoon, H., & Choi, M. (2006).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on problem behaviors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7*, 21-44.
- Yune, H., Kang, J. H., & Oh, K. J. (2011). Stability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in preschoolers: A one-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617-627.

---

Received May 31, 2014

Revision received July 27, 2014

Accepted August 11, 2014